

# 2024, 광주가 온다



데스크칼럼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seonwook.kim@jnibo.com

1980년 5월 광주의 기억이 다시 소환됐다. 12월 3일이다. 무도한 권력의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밤이다. 국회 잔디 축구장에 무장한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줄줄이 내렸다.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했다. 80년 광주가 2024년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재현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국민 모두가 불안과 공포로 잠 못 이룬 불면의 밤이었다. 만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이 조금만 늦어졌다면, 그 사이 계엄군이 본회의장에 진입했다면, 그래서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44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짓밟혔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80년 5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환청처럼 들린다. 계엄군의 군함발 소리, 귀를 찢는 총 소리, 그리고 절규하듯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두방송).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집 근처 방송국 건물이 화재로 불탔다. 대학생이던 삼촌은 우리 집 지하에서 숨어 지냈다. 끔찍한 일도 있었지만, 떠올리고 싶지 않다.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계엄군. 진압봉과 구타, 연행. 그들의 총과 칼을 맞고 쓰러진 시민군들. 상무관에 안치된 수많은 주검들. 80년 광주는 '신군부'에 의해 철

저하게 고립된 채로 참혹하고 처참했다. 언론이 막혀 폭동과 사태로 왜곡됐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춘 시간. 국회 앞에서 '계엄 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가 밤하늘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1987년 6월항쟁에서 외쳤던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다시 듣게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80년 광주가 그랬듯이,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국회로 모여 들었다. 누구도 이들을 부르지 않았다. 깊은 밤이었다. 맨몸으로 장갑차 앞을 가로 막았다.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들의 진군을 저지했다. 국민의 힘으로, 한층 성숙된 시민 의식으로 계엄을 진압했다. 그 길목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탄핵집회는 5월 '대동세상'과 꼭 닮았다. 80년 5월, 광주는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군부 독재에 저항했다. '오월 공동체 정신'은 44년 후 '릴레이 선결제'라는 이름으로 진화했다. 집회에 참여 못한 이들은 여의도 인근 식당에 어묵·김밥·커피 등을 미리 결제해 참여 시민들의 배고픔을 채워줬다. 핫팩과 음료도 무료 제공됐다. 나눔과 연대의 물결이 타락한 정권을 탄핵으로 심판했다. 한 소녀는 "역사책 속에 들어간 것 같다"고 기뻐했다. 세계 시민이 극찬한 놀라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다.

광주와 달랐던 한 장면은 지금도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제복 입은' 시민이다. 그날 영문도 모른채 동원된 우리 젊은 군장병과 경찰들이다. '내란' 이란 명에 앞에 이들이 느끼고 있을 정신적 충격은 얼마나 클까. 한강 작가는 그들을 이

런 말로 달랐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판단하려고 애쓰고, 충돌 속에서도 최대한 소극적으로 행동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명령을 내린 사람들에게는 소극적으로 보였겠지만,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머뭇거리고 주저함,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몸짓이 아니었을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표결 일인 14일, 한강 작가의 두 질문을 던지며, "그렇다고 답하고 싶다"며 "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월 광주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단순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다.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이다.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다.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역사이고, 정신이다. 그래서 '5월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5월 영령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은 한뿌리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5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날, 역사 바로 세우기가 비로소 완성된다고 본다. 2024년 서울과 80년 광주는 민주주의의 피와 땀으로 맞닿아 있다. 탄핵집회에서 모두가 지켜봤다. 민주주의를 더 아름답게 꽃피울 새로운 세대가 다음 세상의 문을 열고 있다. 광주가 다시 오고 있다.

## 社說

### '한동훈 체제' 붕괴, 국민의힘 혁신해야

#### 권력·기득권 지키기 미래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책임지고 결국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62.8%의 지지를 얻고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여당 대표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데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한 대표의 사퇴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탄핵 기간 집권 여당이 보여줬던 행태는 무책임하고 퇴행적이었다. 국민의힘의 뼈를 깎는 변화를 촉구한다.

한동훈 체제의 붕괴는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후 친한계로 불리는 장동혁·진중오, 친윤계 김민진·인요한·김재원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하면서 기정사실화됐다. 그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친윤계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비난하는 것도 부족해 막말을 내뱉으며 조롱도 서슴치 않았다. 의원 총회에서 '한 명씩 일어나 가부나 기권을 다 얘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얘기에는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적 정당인지 의심이 갈 정도

다. 스스로 자중하고 반성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오직 당의 주도권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한심한 작태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안긴 실망감은 크다. 경제가 추락하고 국가의 안위마저 위협받던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무를 저버리고 분열과 독선으로 국민을 양분시켰다.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가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도 사태를 수습하려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집권을 연장하고 기득권을 유지할 것인지에만 골몰했다. 계파간 이견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 대표 취임 이후 강조했던 당정간 소통과 계파간 화합도 말 뿐이었다. 독선과 아집으로 국민적 공분도 자초했다.

집권 여당의 존재가치는 무엇보다 책임감에서 찾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 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전면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 계엄사태에서 보여줬던 반민주적 행태와 안일한 인식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민심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권력과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서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

### 이젠 무너진 골목경제 되살려야 할때

#### 혼란 벗고 민생경제 회복되길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송년회를 제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수 경기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말 대목을 앞두고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의 여파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호소문이다. 12·3사태로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응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5일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긴급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12·3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송년 특수가 사라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상생카드 할인율을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원 활성화를 위해 연말 특별할인을 시행하고 소비진작 이벤트,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강 시장은 "혼란한 시기일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민생인 만큼 집회와

장에서 고생한 시민들, 내수 부진으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 수출 부진·환율 급등으로 고달픈 기업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 5개 구청장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상생카드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고 예정된 각종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송년회와 신년회 등을 예정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건 국회가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시름 놓았다는 점이다. 탄핵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등이 남아있어 여전히 국민의 일상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경제다. 이미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계엄사태로 움추리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탄핵과 동시에 지지체들이 잇따라 민생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루라도 빨리 이번 혼란을 벗고 민생경제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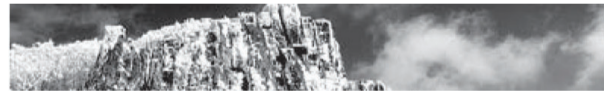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세상

15일(현지시각)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연례 '산타 런' 행사가 열려 산타클로스 복장의 참가자들이 달리고 있다. AP/뉴시스

### 서석대

'국회 토르'. 우원식 제22대 국회의장의 새 별명이다. 12·3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까지, 자신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 의사봉을 두드리던 모습에서 MZ세대들은 망치를 든 인기 히어로 '토르'를 연상시켰다. 우 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과 탄핵안 표결 때 연달아 착용했던 연두색 넥타이마저 화제다. 해당 넥타이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유품으로, 우 의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이 넥타이를 착용하며 형님에게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빌곤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의 탄핵을 염원했던 국민 열기는 우 의장을 신뢰도 1위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6%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1%를 넘겼다.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



다." 지난 14일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고 본회의를 마치며 우 의장이 했던 말이다. '국회 토르'는 탄핵안 가결 순간 연말 특수를 잃을 자영업자들을 걱정했고, 비상계엄 사태와 8년 만의 현직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민들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길 염원했다.

실제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기까지 소매판매액지수는 89.7(2017년 1분기)로 뚝 떨어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1440원 선을 뚫은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30원 선을 오르내리며 고공행진하고 있고, 내수 기업들은 이미 올해보다 더 나쁜 내년을 대비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국정 정상화의 단조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보이는 탄핵 심판 과정과 바닥을 밀도는 소비심리는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끝까지 싸울 의지를 드러낸 윤석열의 발언은 앞으로 더 갈등하고 분열될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가 '다음 정권'보다 '내일의 경제'를 먼저 생각하길 간절히 바라본다.

곽지혜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